

한류 현상과 일선동조론 재고

세키네 히데유키(関根英行, 경원대학교)

1. 머리말
2. 한일 계통론의 계보
3. 한일 계통론 부정의 패러다임
4. 일선동조론의 후유증
5. 일선동조론 재고의 계기
6. 맺음말

1. 머리말

제2차 세계대전 후, 한국인과 일본인의 계통관계나 문화의 동질성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지 못했는데 그 원인으로서 식민지 통치 이데올로기이었던 ‘일선동조론’의 후유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 계통관계가 있다는 명제를 이용해서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은 마땅히 비판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계통관계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부정됨으로 인해서 양자의 인종적, 문화적 동질성에 관한 연구를 정상적으로 진행시키는데 장애로 작용한 경우가 발생했다는 측면은 배제할 수 없다.

본 발표는 1945년 이후 한일 양국의 학계에서 형성된 패러다임, 즉 서로의 인종적, 문화적 관계를 기피하거나 부정하려는 사조를 ‘일선동조론의 후유증’이란 키워드로 파악하고, 그것이 형성된 배경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진단하는 것과 아울러 한류 현상이 학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우선 한국인과 일본인의 민족적 계통관계를 주장하는 학설의 계보를 약 3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견해를 제시하고, 그러한 논리가 근대에 들어와서 한국침략이란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었다가 1945년 이후에는 그 반동으로 탈 일선동조론적 사조가 형성됨으로써 서로의 민족적 계통이 왜곡되었음을 기술하고자 한다. 그리고 새로운 한일관계의 국제 질서가 구축되어가는 가운데 한국인과 일본인의 계통관계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어가고 있는 상황과 이와 아울러 일본인의 한국인식이 획기적으로 변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동안 등한시되어 온 한국인과 일본인의 계통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패러다임에 대한 검토와 과거의 연구사에서 무시되어 왔던 연구의 검토부터 시작해야 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한일 계통론의 계보

일본인의 인종 형성을 둘러싸고 한반도 인종과의 관련성이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에도시대(江戸時代, 1603~1867)에 국학자나 신도학자는 일본인과 한국인의 계통관계를 부정하였으나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 1657~1725)를 포함한 일부 학자들은 유교적인 합리주의 입장에서 『古事記』와 『日本書紀』에 기술되고 있는 신화를 고대의 역사적 사실이 반영된 사서로 삼고 이미 일본인종의 한반도 도래설을 주장한 바 있었다.

메이지시대(明治時代, 1868~1912)에 들어와서도 새로운 형태의 합리주의, 즉 서구학문의 영향 아래서 일본인종의 한반도 도래설이 새롭게 강조되면서 그 학설을 주장하는 학자가 나타났다. 대표적인 서양학자는 일본으로 체제하고 있었던 독일인 의사 벨츠(E.von Baelz:1849~1913)이며 그는 2만 명이나 되는 일본인의 관찰을 통해서 일본인에게는 남방계와 북방계 사람들이 혼합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반도에 통해서 일본열도에 이주한 북방계 사람들이 일본의 지배층이 되었다는 가설을 발표하였다. 그의 견해는 서구 학문의 전문가가 진단한 것으로서 당대 일인 사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¹⁾

특히 서구 사학의 방법을 도입한 문명사학과 한학계 고증학자들 사이에는 한국인과 일본인이 같은 계통으로 보는 학자가 적지 않았다. 그들은 일본민족이 여러 민족이 혼합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는 ‘혼합민족설’과 일본의 선주민이 외래 민족에게 정복당했다는 ‘도래인 정복설’, 그리고 정복민족의 기원이 한국이나 북방 아시아로 보는 ‘정복자 북방 기원설’로 의견이 일치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제국주의 시대에 들어가기 전에는 神道-國學 학자들은 천황 중심의 가족국가로 보는 사상, 소위 ‘國體論’을 주장하고 있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교적 자유로운 발상으로 일본인의 기원을 한국인과의 관련성 속에서 생각하는 학자들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대부분이 『고사기』, 『일본서기』에 나타난 신화를 사실로서 해석하는 점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제국주의 시대의 한일합병을 계기로 이러한 학설이 식민통치 정당화를 위한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의 색채가 가해졌다. 청일·러일전쟁을 거쳐 일본이 주변 국가들을 동화·흡수해 나가면서 국체론자들 저자 ‘혼합민족설’을 수용하여 피지배민족을 ‘養子’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하여 가족국가 속에 편성하려는 이데올로기를 산출하게 되었다. 특히 한일합병은 일본인과 가장 가까운 민족을 흡수하는 사업으로써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러 학자의 학설이 이용되

¹⁾ Baelz, E.von(1883, 1885): Die körperliche Eigenschaften der Japaner, Mitt, Deutsch, Ges, Nature u. Völkerk. Ostasiens, 28: 330-359, 32: 35-103. 山口敏(1999) 『日本人の生いたち』(東京:みすず書房), pp.9-11면에서 재인용

기도 했다.

인류학자 도이리 류조(鳥居龍藏, 1870~1952)의 견해는 그 당시의 학계의 정설로 알려졌는데 그는 일본인종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사람들을 ‘고유일본인’(Japanese proper)이라고 명명하여 석기시대(현대 용어로는 야요이 시대)와 금속기 사용 시대(현대 용어로는 고분시대-지은이)에 한반도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로 보았다.²⁾

언어학자 가나자와 쇼자부로(金澤庄三郎, 1872~1967)는 한국어는 일본어와 동일한 계통언어로서 일본어의 일본파에 지나지 않으며, 마치 독일어와 프랑스어, 프랑스어와 스페인어와 같은 관계라고 주장하였다.³⁾ 또한 역사학자 기타 사다키치(喜田貞吉, 1871~1939)는 고구려·백제 왕족과 천황은 모두 부여족으로 양자가 같은 계통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였다.⁴⁾

이러한 일선동조론자들의 견해는 1920~40년대의 저명한 학자나 지식인들에 의해 널리 거론되었는데 그들은 단순히 한국인과 일본인의 계통관계에 관한 ‘사실’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양자가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식민지 통치에 가담하게 되었다.

3. 한일 계통론 부정의 패러다임

(1) 단일민족 이데올로기와 일선동조론 후유증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한국인과 일본인의 민족적 계통관계가 부정되는 이데올로기가 형성되었는데 그 이유로서 두 가지의 사회적 요인이 생각된다. 하나는 단일민족 이데올로기의 형성이며 다른 하나는 일선동조론의 후유증이다.

전자는 팽창 정책을 혐오하는 국내의 심리적 분위기, 자생적 발전사관을 가지는 마르크스주의 사학의 융성, 미국의 대 공산주의 전략에 응하는 애국심 교육정책, 외국의 분쟁에 간섭하지 않으려는 쇄국적 외교정책, 진부적 지식인에 의한 반미 사조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 것이다.

한편 후자는 일선동조론을 혐오스러운 침략사상으로 배척하고 기피하는 태도이다. 말하자면 일종의 반동 현상이 일어나 연구자들은 침략 이데올로기로서의 일선동조론에 대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기피하는 심리가 작용하여 양자의 계통관계는 외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본의 고대 역사학의 상징적인 역사학자는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 1873~1961)인데 그는 일본이 순수한 일본민족에 의해 형성된 단일민

²⁾ 鳥居龍藏(1975) 「古代の日本民族移住發展」, 『鳥居龍藏全集 第1卷』(東京:朝日新聞社), pp.504-505. (『歴史地理』28卷 5號, 1916.)

³⁾ 金澤庄三郎(1920) 『日韓兩國語同系論』(東京:三省堂).

⁴⁾ 喜田貞吉(1979) 「日鮮兩民族同源論」, 『喜田貞吉著作集第8卷民族史の研究』(東京:平凡社) 『歴史と民族』第6卷 第1號, 1920.7.)

족임을 강조하였다.⁵⁾ 그의 연구방법의 두드러진 특징은 신화를 어디까지나 고대인의 사상이나 사유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거기에서 역사적 사실을 추출하는 시도 자체를 일체 부정했다는 사실이다. 그의 견해가 학계에 널리 수용되면서 기존의 신화해석을 중심으로 한 학자들의 견해가 진부하고도 위험한 연구로서 간주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조는 인문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에서도 일어났다. 일본인의 기원을 생물학적으로 탐구하는 형질인류학에서도 일본인이 주변 인종과의 혼혈 없이 진화해 온 것으로 파악하게 되었다. 교토 제국대학(京都帝國大學)의 기요노 겐지(清野讓次, 1885~1955)와 도호쿠 제국대학(東北帝國大學)의 하세베 코톤도(長谷部言人, 1882~1969), 스즈키 히사시(鈴木尙, 1912~) 등⁶⁾이 그러한 학설을 구축하였다.

또한 한국을 비롯한 주변 지역과의 관련성을 도외시하면서 오로지 일본 국내만을 응시하고 일본 고유의 문화를 추출하고자 하는 민속학이 문화연구의 중심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와 같은 학문적 풍토 속에서 한국인과 일본인의 계통관계에 관한 학설을 제창한 학자들은 일반 연구자들의 뇌리에서 잊혀져 가게 되었다.

그 결과 전후 한국과 일본의 계통관계에 관한 연구는 인종적인 면을 제외하고 문화적인 면에 한정시켜서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는 주로 오야야시 타료(大林太良, 1929~2002)나 요다 치호코(依田千百子, 1943~) 등⁷⁾ 전파주의 민족학자(역사민족학자)에 의해 진행되었으나 현재는 이를 계승하는 연구자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 있어도 마찬가지이었으며 어떤 고대사 전공 연구자는 일본인의 기원 연구는 일본 학자의 몫이라면서 한국 역사를 저축하지 않는 한 어떤 학설을 내세워도 참견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⁸⁾

(2) 왜곡된 한일 계통론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연구자들의 인식을 왜곡시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 사례로서 일본인의 기원에 관련해서 국내의 단일민족론에 가감하게 도전하고 학계를 동요시킨 두 학설을 들고자 한다. 하나는 ‘기마민족설’이며 다른 하나는 ‘일본인의 이중구조모델’이다. 필자가 보기에 두 학설 모두가 일선동조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일본인의 기원을 한반도에서 찾아 세간의 인기를 끄는데 성공한 학설이라 할 수 있다.

⁵⁾ 津田左右吉(1963) 『日本上代史の研究』 津田左右吉全集 第3巻(東京：岩波書店, pp.440-441).

⁶⁾ 清野謙次(1946) 『日本民族生成論』(東京：日本評論社), 長谷部言人(1949) 『日本民族の成立』(東京：中央公論), 鈴木尙(1983) 『骨から見た日本人のルーツ』(東京：岩波書店). 참조.

⁷⁾ 岡正雄(1979) 『異人その他 日本民族=文化の源流と日本国家の形成』(東京：言叢社), 大林太良(1985) 『東アジアの王権神話』(東京：弘文堂), 依田千代子(1985) 『朝鮮民俗文化の研究』(東京：瑠璃書房). 등.

⁸⁾ 李基東(1996) 『百濟史研究』 一潮閣, pp.293-294.

1948년에 에가미 나미오(江上波夫, 1906~2002)에 의해 발표된 ‘기마민족설’⁹⁾은 제2차 세계대전 후로서는 천황과 한반도의 관련성을 언급한 최초의 학설이었다. 단 일민족 이데올로기와 일선동조론에 대한 반발이 심한 시대에 발표된 학설로서는 극히 이례적인 학설이었기 때문에 사학계에서는 수용되지 않았지만, 많은 지식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역사 마니아의 열광적인 인기를 끌어 모았다. 사실 가마민족설은 일선동조론자인 기타 사다키치의 학설을 계승하여 구축한 것이지만 두 가지의 왜곡된 인식이 내포되고 있다.

하나는 ‘기마민족’의 실체를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한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는 점이다.¹⁰⁾ 그는 가마민족을 가리키는데 ①대륙북방계 민족(문화), ②동북아시아(계)의 기마민족③부여=고구려계의 기마민족(동북아시아 기마민족의 일파), ④구 만주 동부.조선북부(부여.고구려)민족, ⑤동쪽은 몽고에서 서쪽은 동구에 미치는 유라시아 지역의 민족, ⑥북방계 기마민족, ⑦고구려족.부여족.예족, ⑧부여.고구려와 관계가 있는 동북아시아계 민족, ⑨북아시아.동북아시아 기마민족, ⑩흉노.선비.오환.부여.고구려족, ⑪胡族, ⑫북방 유라시아 민족, ⑬대륙북방 기마민족, ⑭구 만주 동부에서 남하, ⑮구 만주 동북부의 부여, 고구려계 민족, ⑯대륙에서 기마를 다루는 민족, ⑰중.남시나에서 온 민족 등의 명칭을 제시하였다.

또 하나는 기마민족의 정체에 관해서 가능한 한 백제를 제외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서기』에 일본천황과 백제왕족의 긴밀한 관계가 기술되어 있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라는 사실이다. 만일 그가 언급한대로 기타 사다키치의 학설을 계승하고 있다면 백제와 천황의 관계를 강조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③, ④, ⑦, ⑧, ⑩와 같이 천황과 부여.고구려까지는 인정하고 있지만 백제를 논한 부분이 전혀 없다는 사실에서 의도적으로 제외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¹⁾

최재석이 지적한 것처럼 에가미는 학계의 사조를 감안해 천황의 기원에 관하여 백제는 물론 한민족이라는 사실마저도 언급을 회피했다고 판단된다. 그와 같은 왜곡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유라시아까지 거슬러 올라가 막연하고도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절대로 풀리지 않는 미궁 속으로 몰아 넣었던 것이다.

1991년에 발표된 하니하라 가즈로(埴原和郎, 1929~2004)의 ‘일본인의 이중구조 모델’¹²⁾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야요이시대(B.C. 4세기~A.D. 3세기)에서 고분시대(A.D. 3세기말~A.D. 7세기)에 걸쳐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 대규모 민족이동이

⁹⁾ 江上波夫 他(1949)「日本民族=文化の源流と日本国家の形成」『民族学研究』第13卷3号, 江上波夫(1967)『騎馬民族国家』(東京:中央公論). 등

¹⁰⁾ 崔在錫,(1990)『日本古代史研究批判』一志社, pp.192-193.

¹¹⁾ 최재석은 그의 저서에서 “백제의 황족과 일본의 천황족은 ‘同源’에서 나왔다”라는 짤막한 한 구절(江上波夫 外(1975)『論集 騎馬民族征服王朝說』(東京:大和書房), p.232)만 있다고 한다. 崔在錫, 앞의 책, p.193.

¹²⁾ Hanihara, K., Dual structure model for the population history of Japanese, *Japan Review*, 2, International Research Center for Japanese Studies, 1991.

이루어졌으며 그들과 선주민인 조문인(縉文人)이 혼혈을 거듭하여 일본인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1997년부터 4년간 진행된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인 ‘일본인 및 일본문화의 기원에 관한 학제적 연구’에서는 그 모델이 기본적으로 검증되며 단일민족론적인 일본인 형성설은 과학적으로 부정되었다. 이러한 학설이 수용되는 사회적 요건으로써 국내의 외국인 수 증가와 출생률 저하로 인해 이민의 수용과 이에 따라 이민족과의 공존의 필요성에 따른 사회적 요구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¹³⁾

그런데 이 모델에는 한반도에서 이주한 집단에 일본인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대목을 포함하고 있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일본인이란 일본열도의 선주민과 혼혈한 고대한국인의 후손’이라는 명제로 귀결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학설을 자세히 보면 도래인과 한민족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래인의 기원을 한반도보다 북쪽에 설정하고 있는 것, 어디까지나 한반도를 경유지로만 보려고 하는 것, 도래인을 설명할 때 ‘기마민족’, ‘도래계 집단’, ‘통구스계 사람’과 같은 막연한 북방계 민족으로 표현할 뿐, 고대 한국인과 관련이 있는 용어는 일체 사용하지 않고 애매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서 도래인과 시베리아인의 체질의 유사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는 그 또한 예가미와 같은 전략을 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⁴⁾

위의 두 연구자는 일본인의 기원과 고대 한국인과의 계통관계를 절묘하게 피하여 ‘일선동조론의 잔재’라는 오명을 면하면서 납득할 만한 일본인 형성설을 보여주어 세간의 명성을 얻는 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만약 그들이 연구자 사이에 만연해 있는 일선동조론의 후유증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들의 소신인 일본인의 조상이 한국인이란 사실을 그대로 언급했다면 아마 도리이나 기타처럼 학계에서 매장 당했을 지도 모른다.

필자는 근년 한국인과 일본인의 계통관계나 고대 한국과 일본과의 관련성을 정력적으로 발표해 온 한국과 일본의 학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인 최재석(1926 ~)¹⁵⁾ 과 재야학자 이시와타리 신아치로(石渡信一郎, 1926 ~)¹⁶⁾ 가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소신을 너무나 직접적으로 밝힌 나

¹³⁾ 줄고(2001) 「한국인과 일본인 민족적 계통과 동질성에 관한 논점」 일본학협회(현 동아시아 일본학회) 『일본문화연구』 5집.

¹⁴⁾ 줄고(2005) 「일본인의 이중구조 모델에 있어서의 한국인 인식의 한계」 동아시아 일본학회 『일본문화연구』 16집.

¹⁵⁾ 崔在錫(1990) 『百濟의 大和倭와 日本化過程』 一志社. 崔在錫(1990) 『日本古代史研究 批判』 一志社. 崔在錫(1993) 『統一新羅·渤海와 日本의 關係』 一志社. 崔在錫(1996) 『正倉院 소장품과 統一新羅』 一志社. 崔在錫(1998) 『古代韓國佛教關係史』 一志社. 崔在錫(1998) 『일본 고대사의 진실』 一志社. 崔在錫(2000) 『古代韓國과 日本列島』 一志社. 崔在錫(2001) 『古代韓日關係와 日本書紀』 一志社.

¹⁶⁾ 石渡信一郎(1990) 『応神天皇陵の被葬者はだれか?』 (東京:三一書房)., 石渡信一郎(1991) 『蘇我馬子は天皇だった』 (東京:三一書房)., 石渡信一郎(1992) 『日本書紀の秘密』 (東京:三一書房)., 石渡信一郎(1992) 『聖徳太子はいなかった』 (東京:三一書房)., 石渡信一郎

며지 학계에서는 완전히 냉대 받고 있는 실정이다.

4. 일선동조론의 후유증

일선동조론을 저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조와 ‘이중구조 모델’의 관계에 관하여 신진 기예의 인류유전학자 시노다 겐이치(篠田謙一, 1955~)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옛날 인류학이라고 하면 일선동조론이라고 하는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으로 진출하여 지배하고 있을 때 선전된 학설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성이 곧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게 되었고, 쇼와(昭和) 20년대(1945년~1954년)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하니하라와 그 지지자들 가리킴-지은이)이 ‘이중구조 모델’을 제시하면서 조몬시대(기원전 1만년부터 기원전 4세기경)에 한국과 일본이 분리된 상태였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한반도에서 조몬인의 인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 이외에 일선동조론에 연결되는 것을 기피하려는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¹⁷⁾

즉 그는 조몬인을 일본 고유 사람으로 특별시하여 한국인과 차별화시키려는 의식의 배경에는 일선동조론의 후유증이 깔려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학계에서 조몬인의 특이성을 강조한 사조는 민족주의 이외에 일선동조론을 멀리 하고 싶은 심리적 작용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전의 학계를 아는 하니하라의 세대를 감안하면 일선동조론의 후유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수긍되는 일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한반도에 대한 관심을 기피하려는 심리는 유독 연구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 한국 식민지 시대를 체험한 일반적인 일본인 사이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인 것 같다. 정대균(1948~)에 의하면 “전후의 일본에서는 식민지 체험에 향수를 느끼면서 추억하는 것을 금기하는 풍조가 조성되었으며 언어 세계에 등장하는 식민지 체험자의 많은 자들은 스스로 향수를 금하는 태도를 취했다”¹⁸⁾ 고 한다. 또한 가와 무라 미나토(川村湊, 1951~)는 일본의 식민지 체험자와 한국의 식민지 세대에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은 ‘과거를 모른다’는 태도라고 한다.¹⁹⁾ 즉 식민지 시대에

(1994) 『日本古代国家と部落の起源』(東京：三一書房), 石渡信一郎(1996) 『蘇我王朝と天武天皇』(東京：三一書房), 石渡信一郎(1997) 『ワカタケル大王の秘密』(東京：三一書房), 石渡信一郎(1999) 『日本地名の語源』(東京：三一書房), 石渡信一郎(2001) 『蘇我大一家と飛鳥』三一書房.

¹⁷⁾ 2003.10. 7, 사가의가대학(佐賀医科大学)에서 시노다 겐이치(篠田謙一)교수와 인터뷰.

¹⁸⁾ 鄭大均(1995) 『韓國のイメージ』(東京：中央公論社), p.35.

¹⁹⁾ 川村湊(1988) 『ソウルの憂鬱』(東京：草風館), p.231.

‘동조동근’이란 이데올로기에 번롱을 받으면서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이제는 ‘아는 척하지 말자’는 것이 서로의 약속이 되었던 것 같다.

제2차 세계대전 전을 알고 있는 세대에는 이러한 인식상의 문제점이 보편적으로 볼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선동조론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이 없는 세대의 연구자의 인식은 어떨까?

50대 연구자인 시노다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세대에는 선배 연구자가 얼마여 있던 존재구속성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노다와 같은 세대의 인류유전학자 사이토 나루야(齊藤成也, 1957~)는 연구자 스스로가 한국인과 일본인의 관계를 피하려고 하는 의식이 “무의식 중에 잔재해 있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 역시도 무의식적으로 도래인이 한반도에서 오지 않았으면 하는 의식이 있는 것 같다”, “일본인에게는 있으면서 한국인에게 없는 유전자를 찾게 되면 왠지 기쁘다”는 심정을 고백하기도 했다.²⁰⁾ 그는 인류유전학자 사이에 한국인과의 일본인의 계통관계를 가능한 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잠재의식이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다.

요컨대 일본인 혹은 일본문화의 기원연구에 종사하고 이는 여러 연구자 중에서도 특히 인류유전학자는 다른 분야의, 예를 들어 문헌사학, 고고학, 민속학 등의 연구자들보다는 민족의식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일선동조론의 후유증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무의식 차원에서는 여전히 일본인과 한국인의 계통관계를 기피하려는 태도가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다.

5. 일선동조론 재고의 계기

(1) 인류유전학의 성과

위와 같은 인류유전학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분야가 제시하는 연구성과는 지금까지의 학계의 상식에 파격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인류유전학이 한국인과 일본인의 유전자 거리가 매우 근사한 것이 밝혀져 있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일까?

예를 들어 일본 유전인류학의 개척자이자 도쿄대학 명예교수인 오모토 게이치(尾本恵市, 1931~)는 “일본인과 가장 가까운 아시아의 인근 집단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으면 지금으로서는 한반도 사람이라고 대답한다”²¹⁾ 고 한다. 그 제자이자 국립유전학연구소 교수인 사이토는 “여러 유전자를 비교하면 보통 한국인이 일본인과 가장 가깝게 나타난다”²²⁾ 고 한다. 또한 국립 과학박물관 교수인 시노다는 “일본인

²⁰⁾ 2003. 10. 10, 국립유전학연구소에서 사이토 나루야 교수와 인터뷰.

²¹⁾ 2003. 10. 8, 모모야마 하쿠인 대학(桃山学院大学)에서 오모토 게이치 교수에 인터뷰.

²²⁾ 2003. 10. 10, 국립유전학연구소에서 사이토 나루야 교수와 인터뷰.

과 한국인은 비슷하다고 하기보다는 거의 같다고 할 정도'라 한다.²³⁾ 또한 국립유전학 연구소 교수인 호라이 사토시(宝来聡, 1946~)는 본토 일본인, 오키나와인, 아이누, 한국인, 대만인, 중국인의 아시아의 5개 집단 사이의 미토콘드리아 DNA 염기 배열의 변이를 조사하였더니 한국인과 본토 일본인의 유전적 거리는 0라는 결과를 얻었다.²⁴⁾

이와 같이 현대인에 한해서 말하자면 한국인과 일본인은 DNA의 유사성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이 이미 검증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현대인의 데이터를 가지고 안이하게 고대 한국인과 도래인의 계통관계에 대해서 가설을 제시하지 않는다. 도래인의 기원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좀더 고대인골의 DNA데이터 수집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결론을 서두르지 않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인류유전학의 진전은 여러 측면에서 다른 연구분야에 파격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내포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문화가 공간적으로 확산될 때 전파에 의한 것과 민족이동에 의한 경우가 있는데 종래 한국과 일본의 고대 문화의 유사성은 문화만의 전파에 한정되면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사실 문화전파의 양상만으로는 그것이 민족이동의 결과로서 전파된 것인지 민족이동 없이 문화만의 전파인지는 식별하기가 매우 어렵다.²⁵⁾

이는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연구자의 시점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재량이 큰 것을 의미한다. 종래 고대 일본에 대륙이나 한반도의 문화가 전파되었으나 그 문화 수용은 어디까지나 일본인이 주체가 되어서 이루어졌으며, 문화 전파의 담당자였던 도래인의 수는 무시할 수 있는 정도로 적었다는 것이 상식이었는데 이러한 해석에 자의성이 있었는지 재검토해야 할 대목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고대 인골의 DNA 연구가 진전됨으로써 만약 고대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에 대량의 민족이동 사실이 증명될 경우 한반도에서 전파된 고대문화는 일본인이 주체적으로 수용하였다는 해석보다 도래인이 주체가 되어서 이루어졌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지닐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 고대 일본문화의 형성에 대한 해석이 전면적으로 다시 써야 할 지도 모른다. 일본어를 비롯하여 고대 지배층의 문화 그리고 피지배층에 확산되어 있던 민속의 기원에 대한 해석이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아울러 일선동조론자의 견해의 재검토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인류유전학의 연구성과의 신빙성은 그 최첨단의 연구기법을 구사하는 정교함 뿐만 아니라 인식상의 특징을 빼놓을 수 없다. 전 세계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최첨단 학문분야인 만큼 이미 국제적인 표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그만큼 민족적

²³⁾ 2003.10. 7, 사가의가대학(佐賀医科大学)에서 시노다 겐이치 교수와 인터뷰.

²⁴⁾ Horai, S., et al.(1996) mtDNA polymorphism in East Asian populations, in East Asian popul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peopling of Japan. Am. j. Hum. Genet., 59

²⁵⁾ 大林太良 「民族移動」 石川栄吉 他(1994) 『文化人類学事典』(東京: 弘文堂), p.231.

관념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적을 것이다. 또한 인류유전학자들은 자국어로 논문을 발표하는 고고학자, 문헌사학자, 민속학자와 달리 영어로 발표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민족의식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면 한일 계통론에 관련된 여러 분야의 학문 활동의 국제화나 세계 수준의 학문적 표준의 확립이 촉진하는 것이어야 말로 인식상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한류 현상과 한국인 인식

일본인 및 일본문화의 기원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연구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으로써 현대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인식은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다. 문화교류의 활성화가 자국민의 정서변화와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며 우호증진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근년에 일어나고 있는 한류 현상이 학계의 인식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현재 아시아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한류 현상에 대한 해석들이 각양각색인 가운데 일본문화시장에서의 진출의 어려움이나 일본시장의 개방에 성공했다는 성취감과 자긍심 등의 이유로 일본에서의 한류 붐이 다른 아시아 제국에 비해 다소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한 신문에서는 일본사회의 한국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을 「17세기 조선통신사 이후 최대의 ‘韓流」²⁶⁾로 표현하여 “일본 국민들에게 한반도에서 도래한 문화가 이렇게 긍정적 영향으로 퍼지기는 근세에 들러 처음”이라고 하는 하라다 요시쓰구(原田 守嗣, 1952~) 국회의원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또한 같은 신문에 「日인들의 바뀌는 ‘한국관」²⁷⁾이라는 제목으로 “그 동안 일본인들은 한국을 아예 ‘없는 나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한류를 통해 미국과 같은 ‘보통 외국’ 취급을 하게 된 거예요” 라고 하는 知韓派 여배우 구로다 후쿠미(黒田福美, 1956~)씨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앞에서 언급한 하니하라, 에가미, 사이토 그리고 일체 강점기에 한국에 주거했던 일본인에 볼 수 있던 일선동조론의 후유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지 고찰할 만한 대목이다. 김필동은 “현재 일본사회에서 일고 있는 한류 붐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보면 근대 이후 일본인의 문화적 기억에 남아 있는 ‘조선상’의 잔재나 그 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희석시키는데 일조했다”²⁸⁾고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선상’은 근대 이후 변하지 않는 인식의 연속성에 주목해서 한 말이지만 필자는 그와 못지 않게 제2차 세계대전을 분기점으로 조성된 ‘한국상’의 이미지를 희석시키

²⁶⁾ 박은주(2004. 11. 8) 「17세기 조선통신사 이후 최대의 ‘韓流」 「조선일보」

²⁷⁾ 최흡(2004. 11. 9) 「일인들의 바뀌는 ‘한국관」 「조선일보」

²⁸⁾ 김필동(2005) 「한일문화교류의 의의와 전망」, 한국일본학회, 일본학보, Vol.64. p.371.

는데도 일조했다고 해석하고자 한다.

우리는 한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젊은 세대가 연구를 주도하는 시대가 될 때, 앞으로의 패러다임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아마도 1920~30년대처럼 한일 간의 계통관계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전망된다.

6. 맺음말

17세기 이래 한국인과 일본인의 계통관계에 대해 다양한 대안들이 나왔지만 이들 학설들은 시대를 주도하는 패러다임의 흐름에 따라 좌충우돌을 하면서 진행되어 왔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입각해서 주장된 1910~1940년대의 일선동조론과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와는 무관해 보이는 현대 유전인류학의 견해가 서로 유사성을 띠고 있는 점, 과거 50년 동안 一衣帶水의 위치에 있는 한국과 일본의 주민이 인종적으로 관련성이 없다는 견해가 상식적으로 통한다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한다.

도래인의 기원을 탐구한다는 것은 일본인의 기원을 찾는 것임과 동시에 고대 한국인의 기원을 찾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없는 현 상황이 아쉬울 따름이다. 과거 60년 동안 한일 양국의 학계는 단일민족 이데올로기와 일선동조론의 후유증이란 시대적인 제약을 받아 왔으며, 그것이 정상적인 연구를 진행시키는데 장애물로서 작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몇몇 연구자들은 일선동조론의 후유증을 슬기롭게 처리하여 왜곡된 형태나마 두 민족의 계통관계를 표명해 왔으며, 또 어떤 연구자들은 완강한 학계의 냉대 속에서도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꿋꿋하게 유지해 왔던 것이다.

여러 학문분야에서 패러다임 전환이 지적되고 있는 오늘날, 한일 양국의 전통문화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연구자들은 최근의 인류유전학이 보내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려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한류 현상과 이에 따른 교류 증폭을 배경으로 더욱더 가속화될 수도 있다. 과거에 식민지 통치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이용되었던 양 민족의 동질성 연구가 한일 화해시대를 맞이한 오늘날 동북아시아의 파트너로서 긴밀한 유대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필자가 제안하고 싶은 연구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인과 일본인의 계통관계가 부정된 패러다임이 형성된 사회적 요인을 각 학문분야별로 정교하게 분석하는 일이다. 연구방법을 달리 하고 있는 각 연구 분야가 연동해서 유사한 일본인 기원설을 주장하는 데는 사회적 요인이 관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무의식이고 인습적인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워지지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존재구속성을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그 동안 이데올로기적인 사정으로 별로 고려될 기회가 없었던 과거와 현재의 한일 계통론에 관한 연구를 재조명하는 일이다. 우선 위에서 제시한 일선동조론자들의 견해는 재평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즉 일선동조론을 정치 이데올로기로서가 아니라 학설로서의 타당성을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후에 한일을 포함한 아시아의 문화전파의 조감도를 그린 전파주의 민족학자의 견해도 계승·발전하는 일이다. 문화전파에 관한 연구는 이제 문화인류학에서 큰 관심사가 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한일간의 경우는 더 이상 연구분야가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연구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사조의 변화에 따라 연구가 중단된 감이 없지 않다.

마찬가지로 그 동안 한일 계통관계를 언급할 수 없는 아카데미즘 사조 속에서 과감하게 자신의 소신을 발표해온 재야학자의 견해를 검토하는 일이다. 학문적인 근거가 부족한 모든 재야학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자는 일이 아니라, 정통 학계의 견해와 부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한 연구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겸허한 자세로 검토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된 지적 유산을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가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는 일이다. 현재까지 양국에서 진행되었던 계통관계에 관한 연구들에 대해 후속 연구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자료정비와 번역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그 동안 등한시되어 온 연구가 정상적으로 구축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양자의 계통관계를 금기시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재구성하는 일이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일선동조론을 극복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崔在錫(1990) 『日本古代史研究 批判』 一志社.
- 김필동(2005) 「한일문화교류의 의의와 전망」 한국일본학회」 한국일본학회 『일본학보』 Vol.64.
- 박은주(2004. 11. 8) 「17세기 조선통신사 이후 최대의 ‘韓流’ 」 「조선일본」
- 최흡(2004.11.9) 「日인들의 바뀌는 ‘한국관’ 」 「조선일보」
- 세키네 히데유키(2001) 「한국인과 일본인 민족적 계통과 동질성에 관한 논점」 일본학협회(현 동아시아 일본학회) 『일본문화연구』 5집.
- 세키네 히데유키 (2005) 「일본인의 이중구조 모델에 있어서의 한국인 인식의 한계」 동아시아 일본학회 『일본문화연구』 16집.
- 李基東(1996) 『百濟史研究』 一潮閣.
- 崔在錫(1990) 『日本古代史研究批判』 一志社.
- 崔在錫(1990) 『百濟의 大和倭와 日本化過程』 一志社.

- 崔在錫(1990)『日本古代史研究 批判』一志社.
- 崔在錫(1993)『統一新羅. 渤海와 日本의 關係』一志社.
- 崔在錫(1996)『正倉院 소장품과 統一新羅』一志社.
- 崔在錫(1998)『古代韓國佛教關係史』一志社.
- 崔在錫(1998)『일본 고대사의 진실』一志社.
- 崔在錫(2000)『古代韓國과 日本列島』一志社.
- 崔在錫(2001)『古代韓日關係와 日本書紀』一志社.
- 石渡信一郎(1990)『応神天皇陵の被葬者はだれか?』(東京:三一書房).
- 石渡信一郎(1991)『蘇我馬子は天皇だった』(東京:三一書房).
- 石渡信一郎(1992)『日本書記の秘密』(東京:三一書房).
- 石渡信一郎(1992)『聖徳太子はいなかった』(東京:三一書房).
- 石渡信一郎(1994)『日本古代国家と部落の起源』(東京:三一書房).
- 石渡信一郎(1996)『蘇我王朝と天武天皇』(東京:三一書房).. 石渡信一郎(1997)『ワカタケル大王の秘密』(東京:三一書房).
- 石渡信一郎(1999)『日本地名の語源』(東京:三一書房).
- 石渡信一郎(2001)『蘇我大王家と飛鳥』(東京:三一書房).
- 江上波夫 他(1949)「日本民族=文化の源流と日本国家の形成」『民族学研究』第13巻3号.
- 江上波夫(1967)『騎馬民族国家』(東京:中央公論). 등
- 江上波夫 外(1975)『論集 騎馬民族征服王朝説』(東京:大和書房).
- 岡正雄(1979)『異人その他 日本民族=文化の源流と日本国家の形成』(東京:言叢社).,
- 大林太良(1985)『東アジアの王権神話』(東京:弘文堂).
- 大林太良「民族移動」石川栄吉 他(1994)『文化人類学事典』(東京:吉川弘文堂).
- 金沢庄三郎(1920)『日韓兩國語同系論』(東京:三省堂).
- 川村湊(1988)『ソウルの憂鬱』(東京:草風館).
- 鈴木尚(1983)『骨から見た日本人のルーツ』(東京:岩波書店).
- 喜田貞吉(1979)『喜田貞吉著作集第8巻民族史の研究』(東京:平凡社) .
- 清野謙次(1946)『日本民族生成論』(東京:日本評論社).
- 津田左右吉(1963)『日本上代史の研究』津田左右吉全集 第3巻(東京:岩波書店)
- 鳥居龍藏(1975)『鳥居龍藏全集 第1巻』(東京:朝日新聞社).
- 長谷部言人(1949)『日本民族の成立』(東京:中央公論).
- 山口敏(1999)『日本人の生いたち』(東京:みすず書房).
- 依田千代子(1985)『朝鮮民俗文化の研究』(東京:瑠璃書房).
- Bealz, E.von(1883, 1885): Die körperliche Eigenschaften der Japaner, Mitt, Deutsch, Ges, Nature u. Völkerk. Ostasiens, 28: 330-359, 32: 35-103.
- Hanihara, K., Dual structure model for the population history of Japanese, *Japan R eview*, 2, International Research Center for Japanese Studies, 1991